



선수들 “배어난 경관...멋진 경기 펼쳐야죠”

▲ 8일 오전 함평다이너스티CC 1번홀에서 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 프로암대회 출전선수들과 초청인사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KLPGA KB스타투어 오늘 함평다이너스티CC서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 2008 KB국민은행 스타투어 시즌 개막전인 1차 대회가 9일 4계절 양산지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개막된다. 이번 대회에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그린과 페어웨이 컨디션이 최상인 함평다이너스티CC(파72·6천297야드)에서 9~11일까지 3일간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같은 대회 2006·2007년 개막전 우승자인 안선주(21·하이마트)를 비롯해 지난 주 휘닉스파크 클래식 우승자인 김하늘(20·코오롱)과 신인왕 다름을 벌이고 있는 신예 3인방 유소연(18·하이마트), 김혜윤(19·하이마트), 최혜용(18·LIG) 등 국내 정상 여가골퍼들이 출전, 최고 수준의 샷 대결을 펼치게 된다.

특히 함평골프코 출신으로 올 시즌 2승을 올리며 '지존'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신지애(20·하이마트)가 8일부터 도쿄 요미우리골프장에서 열리는 월드레이디스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 불참하게 돼 어느때 보다 우승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안선주는 "유난히 국민은행 스타투어 대회 개막전에 강해 이번 대회도 우승을 노려보겠다"며 "그린과 페어웨이 상태가 아주 좋아 예감이 좋다"고 말했다. 김하늘은 "지난 주 우승의 여세를 몰아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에 도전하겠다"며 "함평다이너스티CC 코스 가 쉽지 않아 8언더파 정도를 치면 우승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타투어 시즌 첫 대회...프로들 그린 상황·거리 측정에 신중

프로암대회 이모저모

○스타투어 대회 올 시즌 개막전인 1차대회 개막에 앞서 8일 열린 프로암대회에서는 이달수 국민은행 부회장, 함평현 KLPGA 부회장 등이 시타를 한 후 출전선수 40명과 초청인사들이 라운딩. 초청인사들은 동반 프로에게 그린에서 퍼팅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연습 퍼팅과 그린 주변 어프로치, 벙커 샷 기회를 주는 등 샷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 프로들도 체중이동, 그림잡는 법, 그린 경사와 퍼팅 라인 읽는 법 등을 알려주는 등 세심하게 조언. ○이날 프로암대회를 마친 프로들은 한결같이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함평다이너스티CC의 페어웨이와 그린상태에 대해서 찬사. 조영란(21·하이마트) 프로는 "지난해 보다 함평다이너스티CC의 페어웨이가 경관이 훨씬 좋아진 것 같다"며 "그린이 약간 느린 듯 하지만 좋은 환경에서 멋진 경기를 펼칠 것 같다"고 칭찬. 이날 시타에서 사회를 본 개그맨 이창명 씨도 지난해 보다 페어웨이

나 주변 경관이 좋아졌다고 칭송. 하지만 프로들은 지난해에 이어 '약간 느린 듯' 한 그린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에 출전하는 국내 정상급 여자골퍼들은 대부분 드라이버 샷을 한 후 정확한 거리 측정을 위해 자신들이 직접 '거리측정기'와 GPS 등을 이용해 거리를 산출하는 신중한 모습. '지존' 신지애 프로가 일본 대회 참가를 위해 출전하지 않아 강력한 우승 경쟁자가 줄어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프로들은 "모든 선수가 경쟁자"라며 우승에 대한 강한 의욕을 표출.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프로들은 지난 동계훈련 동안 체력훈련과 스윙 교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도. 안선주는 "동계훈련 동안 스윙교정을 마무리 하지 못해 시즌 개막전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이번 대회에는 적응기가 끝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 김하늘도 "스윙을 간결하게 교정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다"며 "상승세를 이어갈 자신이 있다"고 우승에 대한 강한 집념을 과시.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나예진 프로(왼쪽)가 프로암대회에 참가한 초청인사의 퍼팅 그림에 대해 조언해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배구연맹 후임 총재 누가 될까? 관심

정두언 의원 등 3~4명 거론

6월 말까지 임기였던 김혁규 전 한국배구연맹(KOVO) 총재가 재임 시도를 포기함에 따라 누가 후임 총재를 맡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구연맹은 7일 이사회에서 남녀부 4개 구단 단장으로 총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후임 총재 선출 작업에 들어갔다. 추천위 관계자는 "물망에 오른 인사들을 상대로 이달 말까지 적임자를 찾은 뒤 이사회를 소집해 추천·동의 절차를 밟고 6월 총회에서 차기 총재를 정식으로 선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한나라당 의원 등 3~4명 정도다.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온 건 정두언(51) 의원이다. 정 의원은 "최근 배구계 인사로부터 총재를 맡아 달라는 얘기를 들었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너그럽게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신지애 1오버파 19위

일본여자프로골프 월드레이디스 1R

일본여자프로골프 두번째 우승컵 사냥에 나선 신지애(20·하이마트)가 첫날 상위권 진입에 실패했다. 8일 일본 도쿄 요미우리골프장(파72)에서 열린 살롱파스컵 월드레이디스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신지애는 버디 4개, 보기 5개를 묶어 1오버파 73타를 쳐 공동19위에 그쳤다. 일본에서 뛰고 있는 장나(중국)가 4언더파 68타를 쳐 단독 선두에 나선 가운데 일본 상금랭킹 1위 고가 미호(일본)가 1타차 2위를 달렸고 이지희(29·진로)가 2언더파 70타로 공동3위에 올랐다.

전남도청 사브르 우승

종별펜싱선수권 女 일반 단체

전남도청이 제46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일반 사브르에서 우승했다. 장현경, 요효경, 김형숙이 나선 전남도청은 8일 고흥 팔영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대회 닷새째 여자 일반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익산시청을 45-44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익산시청에서는 올림픽 개인전에 나서는 이신미·김금화 듀오가 버텼지만 잇따른 국제대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정상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했다. 남자 사브르에서는 국가대표 요은석이 앞장선 상무가 익산시청을 누르고 우승했으며 광주서구청과 부산시청이 남녀 에페 1위에 올랐다.

'올림픽행 좌절' 이원희

선수 활동 계속 할 듯

'함평의 사나이' 이원희(27·한국마사회)의 거취에 유도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주위 분위기로는 선수 생활을 계속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08 베이징올림픽 출전이 좌절돼 한국 유도 사상 최초의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의 꿈이 무산된 이원희에 대해 일부에서 은퇴 가능성까지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이원희 자신이 7일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속시원히 밝혀줬더라면 좋았겠지만 상심한 이원희는 인터뷰를 사양해 그의 거취에 대한 궁금증은 커져만 간다. 그러나 일단 주위 반응으로 볼 때 은퇴를 거론하는 선부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용인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아직 2학기가 남아 최소한 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선수 생활을 계속할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소속팀 한국마사회의 금호연 감독은 "개인 생각이지만 지금 은퇴하는 것은 선수 자신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박사 과정도 남아있고 지금 기량으로도 최소한 2010년 아시안게임까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암대회에 참가한 프로 선수와 초청인사들이 함평다이너스티CC 6번홀(파3) 그린에서 퍼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